

우지연의 정확한 체크



미 증시, 반복된 쓸림과 상반된 분위기

우지연 글로벌 투자전략·시황
02-709-2668 / gyeoni@ds-sec.co.kr

✓ 24년 쓸림+과열 vs 25년 쓸림+조정

- 최근 연말 연초 이어진 미 증시의 M7 쓸림 현상
- 언뜻 보면 반복된 쓸림이라는 면에서 지난 24년 연초와 비슷해 보일 수 있으나 분위기는 상반
- 24년 초 S&P500의 양상이 **쓸림+과열**의 조합이었다면 올해는 **쓸림+조정**의 조합
- S&P500 상승과 M7/493종목 추가 상대강도 심화가 동반됐던 지난 해와 달리 올해 미 증시는 하락추세를 보이는 반면 M7 상대강도는 심화
- 최근 물가, 금리(통화정책), 실적 불안 등 산재된 불확실성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을 높여 증시 조정을 야기
- 그 가운데 상대적 안전자산인 M7에 투자자들의 수요가 집중된 것으로 보임

✓ 밸류에이션은 이익 성장과 할인율의 함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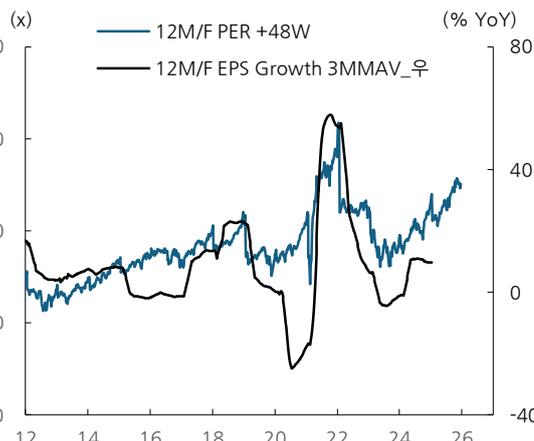
- 미국 12월 물가 서프라이즈로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방 리스크가 진정되며 최근 S&P500은 반등에 성공한 듯해 보임
- 앞으로 M7 주도의 S&P500의 강한 랠리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추가 밸류에이션 확장이 중요
- 그러나 현재 미 기업들의 정체된 이익 성장세는 이미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하기 어려운 상황
- 아울러 분기 실적 시즌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가이던스 및 컨센서스 하향으로 인한 M7 기업들의 EPS 전망 방향성 훼손 가능성도 존재
- 물가와 금리 리스크 진정에 따른 할인율 하락은 밸류에이션의 기술적 반등에 기여하는 수준에 그칠 것
- 밸류에이션 확장 동력이 약화된 만큼 당분간 미 증시는 방향성을 탐색하며 베어 랠리 전개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
- 이익 성장 프리미엄이 중요, 금융주와 같이 최근 가이던스 호조, 신정부 드라이브 수혜 등 영향으로 실적 전망치 상향 조정된 업종 및 종목을 주목

S&P500 24년 쓸림+과열 vs 25년 쓸림+조정



자료: Factset,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미 기업들의 정체된 이익 성장세는 현재의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하기 어려움



자료: Bloomberg,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Compliance Notice

- 동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3자에게 사전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 - 동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 (작성자: 유지연)
 - 동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. 이 조사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이 조사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 - 동 조사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복제 및 배포 할 수 없습니다.
-